

제 | 3 | 주 | 제

팥당 유기식품 가공회사 설립추진
사례와 제도적 과제

김 병 수 | (주)팥당을가닉후드 대표



팔당 유기식품 가공회사 설립추진 사례와 제도적 과제

김병수*

□ 농촌공동체기업 팔당올가닉후드(주) 소개

- 현재 자본금 약 10억원 조성 중,
총 주주 수 110명(농민 86, 소비자 22, 단체 2)

□ 농업회사 팔당올가닉후드 주식회사 설립과정부터 공장 신축 과정을 통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가공 산업의 현주소

- 1996년 두물머리농장으로부터 두물머리식품 인수
팔당생명살림 내 가공사업부 설립
 - 우리 밀 빵, 딸기 잼, 야채효소 생산
- 2004년 농업회사 두물머리식품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형태로 책임 경영제 도입,
농민 회원 외 소비자 자본 투자 길 열음
 - 회사 소유 공장건물 추진
- 2004년 11월 팔당상수원유역 친환경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 2005년 3월 3억 원 유상증자 결정
- 2005년 7월 남양주시로부터 조안면 삼봉리 재재기 마을에 가공공장 설립
허가 및 건축 가능하다는 답을 얻음.
- 2005년 8월 농업회사법인 팔당올가닉후드 주식회사 창립
 - 남양주시와 협의 중, 창업법인의 경우 농지조성비(전용비, 평당

* (사)팔당생명살림 정책기획위원장, 농업회사 팔당올가닉후드(주) 대표

13,600원), 개발분담금(평당 53,000원), 농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이후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면제 받을 수 있다며 권고

- 2005년 9월 남양주시에 창업허가서 접수
 - 2005년 10월 창업허가 취득
 - 2005년 10월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57번지 공장부지 550평 구입
 - 2006년 2월 남양주시로부터 농림부 종합자금 중 농가공 건축 자금 지원 배정(연리 3%,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2006년 2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로부터 용자 불가 판정
 - 창립 1년 미만으로 실적이 없다는 것과 가공지원 자금 30억원 이미 지원 종료 됐다는 것이 이유였음.
 - 2006년 6월 농림부로부터 팔당올가늑이 두물머리 및 팔당생명살림과 동일한(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체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가공사업 지원 추가 자금 배정 확인 받아 남양주 시지부 제출
 - 2006년 6월 농협 남양주시지부로부터 농신보 신용보증 해당되지 않아 대출 불가 통보받음
 - 2006년 7월 농신보 의정부지사로부터 용자금 중 80% 보증해주겠다는 약속 받아 농협 남양주시지부 제출
 - 2006년 7월 남양주시지부로부터 나머지 20%에 대한 담보 제출요구 받음
 - 2006년 11월 중순 우여곡절 끝에 자금집행 승인 받아 착공
 - 2007년 4월 공사 완료 후 입주, 생산 개시하고 있으나 보완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용자금 30% 받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3월 주총 - 3억원 유상증자 의결 (일반주 공모 13,000원으로 결정 ; 액면가 1만원)
 - 2007년 5월 15일 건축 용자금 처리 완결
 - 2007년 5월 18일 준공식
- * 건축 용자금 확보 및 지급이 1년여 지연됨에 따라 약 1억 2천여만 원 손실 발생(공장부지 인근 창고 임대, 생산 및 위생시설 중복투자 및 긴급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

□ 문제점

- 대출, 지원 등 심사 시 사업능력, 판로·개발품·장래 사업성 보다는 서류 작성능력과 인내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짐.
- 규정이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점들이 많아, 사람에 따라 작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음.
- 농업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조차 우리 농업의 가능성과 경쟁력에 대해 불신하고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음.

□ 친환경 가공생산자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

- 자금 마련의 어려움
 - 자본금, 운영자금, 원료구입자금
- 불리한 가격경쟁력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 원료 조달 및 부자재(첨가제 등) 등 개발 미흡
- 포장, 디자인, 경영컨설팅(HACCP) 등 지원부족
- 인력 조달의 문제(생산 현장이 대부분 농촌 지역에 위치)

□ 시급한 정책대안

- 농림부 산하에 '탱크탱크' 팀 및 '원스톱 서비스' 팀 구성 절실

- 농림관련 기관 직원들의 혁신 및 교육 필요
 - 한국농업 및 농촌에 애정과 희망 갖고 있지 않는 직원의 퇴출
 -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 고취 시급

- 실질적 지원 대책 필요

□ 해결을 위한 전략

- 친환경가공 생산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단합과 중장기적 정책대안 마련과 노력

-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시급히 확보

- 대기업 유통 및 가공회사에 상응할 공동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천(생협 등과 연대 절실)

“
맑은 팔당호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
더불어 사는 농촌공동체
”

올가닉 슬로우 푸드 사업으로 또 다른 희망을...

농촌공동체기업 팔당올가닉푸드 주식회사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및 소비자 체험관 설치

새로운 사업
사랑받는 기업

I. 새로운 창업, 농촌공동체기업

II. 새로운 사업개요

III. 협동과 분업 생산

IV. 체험 중심의 소비자 프로그램

1. 회사 규모



증축 예정 조감도

- 대지 : 780평
(구거 임대230평)
- 건평 : 450평
- 생산 및 부대시설 : 260평(1, 2층)
- 저온창고 : 60평
- 소비자 체험 및 전시관 : 2층 (140평)
- 추후 확보 면적 : 3층 (100평 예정)

2. 회사 조직 구성원

○ 경영진

- 대표이사 김 병 수 (팔당생명 정책위장, 유기농 경력 19년)
- 이 사 정 상 목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 회장)
- 이 사 이 정 철 (주, 세바토이 상무이사)
- 사외이사 김 자 현 (한국여성민우회생협 상무)
- 사외이사 이 택 립 (동주 화학 대표)
- 이 사 정 정 수 (유기농 생산자)
- 이 사 김 경 준 (유기농 생산자)
- 이 사 주 재 동 (유기농 생산자)
- 감 사 노 국 환 (유기농 생산자)
- 감 사 조 복 환 (와부농협 전무)

○ 외부 Consulting group

- 기획회사 '이마주' 대표 이형주(경력: 수자원공사, 토개공 용역)

3. 연혁 및 사업규모

< 연 혁 >

- 1990 두물머리 농장에서 딸기잼 생산 시작
- 1993 우리밀 재배 및 식빵 생산 시작
한솔 생명 공동체에서 유기농 김치 생산(삼성그룹 납품)
- 1996 팔당생명살림 내의 가공사업체로 두물머리식품 설립
(우리밀 제과, 제빵, 딸기잼, 야채효소 등 생산)
- 2005 농업법인 팔당올가닉푸드(주) 설립 (유기농 반찬 생산)
- 2006 조안면 삼봉리 공장 신축 (대지 550평, 건평 450평)
- 2007 두물머리식품(주)이 팔당올가닉푸드(주)로 통합
전시·체험관 및 Slow-food Academy 개관(예정)

4. 주주 구성 및 사업현황

○ 주주 구성

- ▶ 자본금 : 10억 원
- ▶ 주주수 : 총 110명
 - 농민 : 86명, 소비자 : 22명
 - 단체(2곳) : 와부농협, 여성민우회생협

○ 생산 품목

- ▶ 우리 밀 제과, 제빵 40여종
- ▶ 유기농산물 반찬 10여종

○ 매장 현황

- ▶ 송파구 방이동 직영 즉석베이커리 외 1개소 운영 중
- ▶ 양서지역 즉석 베이커리점 1개소 준비 중
- ▶ 강남구, 서초구 2개소 직영 즉석 샌드위치점 개소(예정)

5. 거래처 및 매출현황

○ 거래처

- ▶ 한국 생협연대(단위 생협 86개 연합체)
- ▶ 한국 여성민우회생협
- ▶ 농협 하나로마트(양재점, 양서농협 등)
- ▶ 학교급식(와부농협과 7개교 공동계약)

○ 연 매출

- ▶ 2005년 : 5억2천만 원
- ▶ 2006년 : 5억6천만 원
- ▶ 2007년 : 10억 추정 (유기농 반찬 본격 출시)

II. 새로운 사업 개요

1. 새로운 사업의 목적

- 친환경 가공사업 활성화로 팔당유역 농업의 새로운 희망
 - 국산 1차 농산물 생산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공사업
- 소비자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유도
 - 자본조성, 제품개발, 마케팅에 소비자 참여 유도
- WTO/FTA의 대안으로 경쟁력 있고 성장하는 농촌공동체 기업 사례 개발

2. 사업의 내용

1.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 개발, 공급
2. 소비자 요구와 수준을 맞춘 마케팅 전략
 - 새로운 개념의 체험 전지관 운영
 - 슬로우 푸드 매니저 양성과정 설치
3. 더불어 사는 삶에 걸 맞는 음식문화 운동전개

3. 세부 사업추진 개요

1. 새로운 개념의 체험 전시관 설치 운영
2. 새로운 먹거리운동을 선도할
‘슬로우 푸드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농촌의 상생, 농가보호를 위한
협동, 분업화된 생산체계 확립

Ⅲ. 협동과 분업 생산체계

1.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 대규모 공장, 양산 체계의 문제점 극복

- 원가절감,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
= 생산농민은 원료 납품자로 전락
- 양산과 확장을 위한 끊임없는 증축, 증설 필요에 직면

▶ 생산농민, 회사의 역할 분담으로 상생체제 구축

- 생산의 분업화로 생산 부가가치를 농가에 귀속
- 회사는 제품 기획, 개발, 생산관리, 마케팅에 전력

2. 사업 추진 방법

- ▶ 생산 농민의 조직화 : 마을, 품목 단위로
- ▶ 마을의 유휴 시설을 최대한 이용 공동작업장으로 개조
- ▶ 품목별 생산 공정의 세분화, 관리 시스템 개발
- ▶ 생산 농민에게 가공기술 및 위생교육 선행

3. 사업의 기대효과

- ▶ 친환경 생산농민의 소득 향상,
작부 면적 축소로 중도농 탈피
- ▶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도시인의 귀농 촉진
- 생산 기획, 관리, 마케팅 분야 등 고급 인력 필요
- ▶ 더불어 사는 농촌공동체 건설의 토대 마련

3. 사업의 기대효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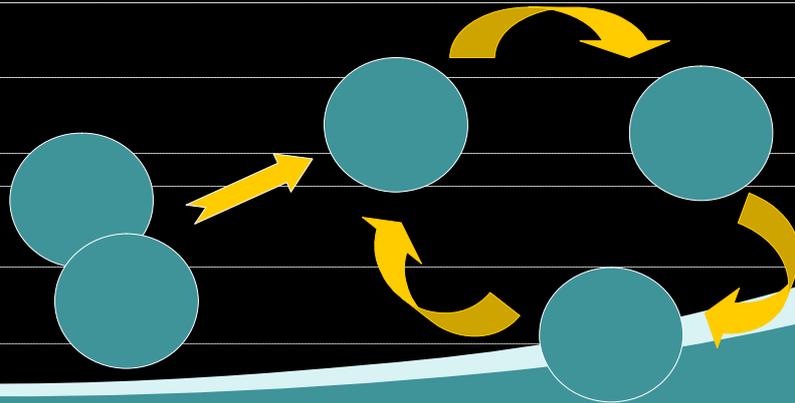
○ 다른 지역 및 사업으로 파급효과

-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성공적 사례 창출
- ▶ 팔당상수원 수해자 및 피해자 간의 상생 모델 제시
- ▶ 도·농 협력관계의 바람직한 사업형식의 창출
-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안 모델 제시
- ▶ 가공사업 활성화로 인한 1차 산업의 생산 안정화
- ▶ 농촌공동체 기업의 모범적인 모델 확립

장기적 발전 모델

○ 장기적인 발전 사이클

- ▶ 사업수익의 유익한 순환 구조 확립
- ▶ 가공시설 및 판매장 사업 수익으로 확대 재생산



향후 과제

1. 팔당상수원 유역의 생태화, 강변 및 도로변 정화,
자전거 및 꽃 길, 산림욕장 등의 생태 공원화 조성
- 지방비, 한강수계 관리기금, 농촌 종합개발사업 등
2. 수도권 소비지에 판매장 지속적인 설치(주민지원 직접사업비 등)
3. 사업 개발 및 경영에 대한 전문가 그룹 참여 유도(소비자)
4. 운영 및 원료 구매자금 등의 원활한 확보(농안기금 등)
5. 더불어 사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 사단법인의 활성화

IV. 소비자 체험 및 슬로푸드매니저

양성과정

1. 슬로푸드 체험관

○ 팔당 유기농 및 슬로푸드 전시

팔당 유기농의 현황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기농산물을 단순한 1차생산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 소비자와 함께 진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슬로푸드 개념을 이야기한다.

○ 유기농 소비자 체험실

유기농 슬로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음식체험으로서 음식과 생활, 음식과 건강, 음식과 문화 등 음식을 통한 삶의 행복과 나눔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 팔당 올가늌 푸드샵

아름다운 먹거리, 팔당올가늌푸드의 새로운 슬로푸드를 만난다.

2. 소비자 프로그램

○ 아동 및 가족 프로그램

미래의 소비자인 아이들의 미각을 패스트푸드로부터 보호하고
슬로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슬로푸드 식단짜기, 가족친지들의 행사를 위한 나눔의 음식 개발하기

○ 기획 프로그램

기업의 연수, 학교의 급식관계자, 국내거주 외국인 등 단체를 위한 우리의 올가닥푸드 프로그램
계절, 절기에 따른 우리나라 전통 슬로푸드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3.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

○ 전문가 과정

올가닥슬로푸드에 대한 영양학적, 인문사회학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소비자들의 삶에 적합한 음식과 생활, 음식과 문화를 관리해주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 일반인 과정

유기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음식이 되어 소비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소비자들의 역할과 태도,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에 대한 이해, 삶의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음식 세팅 프로그램

○ CO-PRODUCER (공동생산자 과정)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역할을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먹거리의 공동생산자, 공동책임자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